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3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4월 24일 (음력 3월 27일) 월요일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닥스클럽

잠수함에서도 휴대폰 터진다

SKT, 세계 첫 통화 성공

SK텔레콤은 바닷속 잠수함 내에서 휴대전화 음성 및 화상 통화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SKT에 따르면 최근 잠수함 내 이동전화 중계기와 바다 위에 통신 안테나를 부착한 부이(buoy)를 케이블로 연결, 세계 최초로 잠수함내 휴대전화 통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전파는 해저를 투과할 수 없어 바다 속에서는 휴대전화 통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SKT측은 영화(덴젤 워싱톤, 진 헥크만 주연의 크림슨 타이드) 속 잠수함이 외부와 통신을 하려고 통신용 부이를 해상으로 방출하는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잠수함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데다 부이 안테나가 출렁이는 파도와 급변하는 해상 날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에 성공하기까지 3개월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거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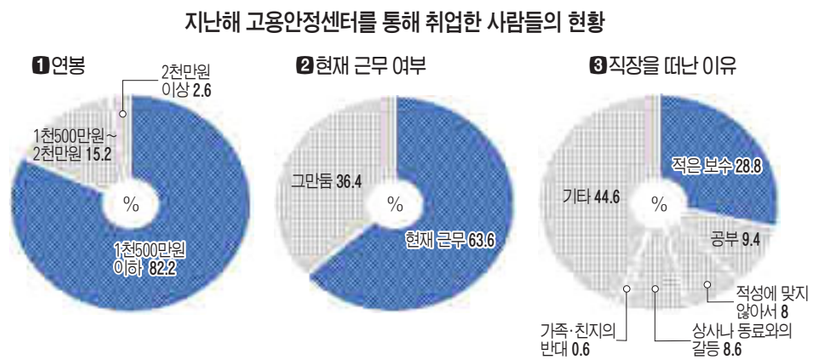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취업 알선' 들여다보니…

82%가 年 1,500만원이하 '박봉'

■본사 1,011명 전화 설문조사

10명중 4명 다시 실직자로



광주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들이 대부분 연봉 1천500만원이 못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다, 저임금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7면〉

이는 본보가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8천53명 중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1천1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전화 설문조사 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382명이었고, 나머지 629명은 연락처가 바뀌어 연결이 되지 않거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응답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연봉이 '1천50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82.2%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월 117만원, 연 1천404만원(4인가족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 2천940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1천500만~2천만원 받은 사람은 15.2%였고, 그 이상은 2.6%에 불과했다. 또 취업자의 38.7%는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해준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36.4%로, 이들 중 72.9%는 6개월 미만, 50.4%는 3개월 미만을 근무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사람 중 56.1%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다시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직 이유로는 '적은 보수'가 2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9.4%)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8.6%)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해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47.7%가 '직장이 그저 그렇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6.3%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7.6%가 '보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를 꼽았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 중 60.9%는 20대여서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여실히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30대가 19.1%로 뒤를 이었고 50대(8.3%)와 40대(8.1%) 등의 순이었다. 10대와 60대 취업자는 각각 1.8%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솟대의 꿈 담양군 담양읍 관방천 다리에 주민들의 꿈을 담은 솟대와 소망기원등이 장식돼 있다. 오는 29일부터 죽녹원을 비롯, 관방제림, 추성경기장 등 담양 일대에서 열리는 담양 대나무축제는 5월 7일까지 계속된다. '숲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이 이번 축제의 주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천 헌금' 민주당 지방선거 비상

조재환 사무총장 영장…최락도씨 出禁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4억 수수 사건의 파장이 광주·전남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특별당비를 받은 것'이라며 의미 축소에 나선 반면, 다른 정당들은 '공천 헌금'으로 단정하며 일제히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공천 탈락 후보들은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1일 최락도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씨를 체포한 서울경찰청은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밤 9시 50분께 서울 홍은동 G호텔 컨벤션센터 현관 앞에서 "김제시장 공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의원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씨에게 돈을 건넨 최 전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행방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2일 긴급 대표단 회의와 23일 간부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번 사건은 공천 헌금 비리가 아닌 단순한 특별당비 모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또 "여권에 의한 계획된 시나리오이자, 민주당 말살행위"라고 역공을 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노당 전남지사 후보 박웅두씨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에 박웅두〈사진〉 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동안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경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박 전 위원장이 93.1%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진도 출신으로 전남대 농대를 졸업하고 곡성군농민회 사무국장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 농·어정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역시 단독 입후보한 이수근 중앙위원이 93.9%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정후식기자 who@

부경학원 창학 56년 특사업 진행
광주의 새로운 평생교육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문의 (062)970-0114 ▶T.(062)970-0007~9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sc.kr
▶상담문의 1588-5053 ▶T.(061)360-5000

창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상담 한국물가정보
TEL.1577-7900 FAX.(062)373-4802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222-8111